

Wendy L. Widder 박사, 다니엘, 세션 1, 다니엘 소개

© 2024 웬디 위더(Wendy Widder) 및 테드 힐데브란트(Ted Hildebrandt)

다니엘서에 대해 가르치는 Dr. Wendy Widder입니다. 세션 1, 다니엘서 소개입니다.

제 이름은 웬디 위더(Wendy Widder)입니다. 구약성서 다니엘서에 관한 이 강좌를 가르칠 예정입니다. 저는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프리스테이트 대학교에서 고대 근동 연구를 전공하고, 매디슨에 있는 위스콘신 대학교에서 인문학 석사, 미시간 주 그랜드 래피즈에 있는 그랜드 래피즈 신학교에서 신학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나는 지난 10년 동안 다니엘서를 가르치고 글을 써왔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하면 내가 선택해서가 아니라 책에 등장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다니엘은 제가 구약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싶은 책 목록에서 정말 낮은 순위에 있었습니다. 어쩌면 옅과 함께 바로 거기에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좋아하는 책이 아니었고 그 중 일부는 마치 마지막 때를 도표화하는 방법인 것처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니엘서를 접근하는 전통에서 자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측도 있었고, 책의 후반부는 뉴스 기사와 나란히 놓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어떤 면에서 그것은 나에게 두려웠고 또한 그러한 예측이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낙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다니엘서에 대한 이해를 업데이트하고 상황을 바꿔야 할 것입니다. 나는 그 책에 정말 혼란스러운 내용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충분한 시간을 보냈고, 다양한 장학금을 모두 정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멀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내 인생에서 이력서에 필요한 내용이 필요하고 약간의 현금이 필요할 때 다니엘에 대한 2주 집중 과정을 가르칠 기회가 제공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러고 싶다고 말했어요. 나는 주석을 파헤치고 그 강좌를 가르치기 위해 몇 주 동안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내가 발견한 것은 기쁘게도 그 책이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다는 것이다. 미래를 위한 지도라기보다 오늘을 위한 격려를 주는 책이다. 그리고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은 바로 격려였고, 교실에 있던 좌석에 있던 제가 가르친 사람들에게 훨씬 더 관련 있는 격려를 찾았습니다.

오늘의 의미가 있는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그것은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책에 흥미를 느낀다.

저는 이 책에 많은 시간을 투자했고,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가져다 줄 몇 가지 내용, 즉 격려의 말을 여러분과 공유하게 되어 기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강의에서 우리는 다니엘서를 장별로 공부할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먼저 다니엘서의 원래 청중이 다니엘서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최대한 이해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원래의 맥락에서 수천년과 몇 개의 대륙과 많은 언어를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 청중에 우리 자신을 두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먼저 그렇게 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자가 원래 청중에게 말한 내용을 이해할 때에만 그것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가르칠 때 몇 가지 자료와 추천 사항을 제공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 서재에 처음 오신다면, 먼저 각 강의에 참석하실 때 책을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해당 장을 읽고 내가 그것에 대해 말하는 내용을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특히 어려운 문제에 대한 추가 리소스를 찾고 있다면 제가 추천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특히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것, 제가 사용했거나 작성한 자료에 대한 간단한 설문 조사를 제공할 것입니다.

그럼 제가 쓴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것은 Zondervan의 하나님의 이야기 성경 주석 시리즈에 있습니다. 2015년 현재 상당히 새로운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목회자와 교사, 심지어는 평신도를 위해 쓰여진 책입니다. 그들은 약간의 깊이로 공부하는 데 관심이 있지만 언어의 정확성이나 그렇지 않으면 길을 잃을 수도 있는 모든 세부 사항을 다루지는 않습니다. 고대 근동 연구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몇 년 안에 저는 Zondervan에서 다니엘에 관한 또 다른 책을 이 시리즈로 출간할 예정입니다.

표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구약성서에 대한 주석적 주석. 히브리어나 아람어를 공부한 적이 있다면 이 내용이 좀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있지만 언어를 조금 공부했다면 실제로 가장 유익할 것입니다. 그러니 2020년에는 이것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희망입니다.

실제로 유용한 또 다른 리소스는 NIV Application Commentary인 NIVAC입니다. 이 글 역시 Zondervan이 작성했으며 Tremper Longman이 작성했습니다. Tremper Longman은 구약성서에서 많은 일을 해왔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말하는 일을 정말 훌륭하게 해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우 복잡한 문제를 선택하여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설명합니다. 그는 오늘날 우리가 이 책을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정말 인기 있는 시리즈이고 이 책은 시간이 지나도 계속 읽혀지고 있습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면서 여전히 복음주의를 유지하고 싶다면 아볼로 구약 주석 시리즈를 추천합니다. 어니스트 루카스의 작품입니다.

이것은 InterVarsity Press 간행물이며 Lucas는 문제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설명할 것입니다. 그는 모든 옵션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자신이 선호하는 옵션을

알려주는 일을 훌륭하게 수행하지만 다른 옵션도 가능하다는 점을 허용합니다. 그래서 학문적인 수준에서는 조금 높지만 그래도 정말 쓸만한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전체 세트를 보유하고 있는 또 다른 인기 시리즈는 Word Biblical Commentary입니다. 저는 다니엘이고 존 골딩게이의 작품입니다. Word는 다시 한 번 문제를 잘 정리합니다.

Goldingay는 많은 문학적 접근 방식을 취하므로 그것이 당신의 관심을 끄는 것이라면 그는 그 일을 훌륭하게 수행합니다. 나는 이 주석을 좋아하지만 Word 주석을 찾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보는 훌륭하지만 때로는 찾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아마도 책보다 이것이 나에게 더 좋을 것입니다. 좀 더 비판적인 학문이나 주류 학문, 즉 자신을 복음주의자라고 밝히지 않는 학자들로 옮겨간다면 실제로 상당히 현대적인 두 가지 표준이 있습니다. 클래식은 1993년 작품이지만 클래식은 헤르메네이아(Hermeneia)입니다.

저는 존 콜린스입니다. 존 콜린스(John Collins)는 묵시문학에 관해 많은 작업을 해왔습니다. 그것은 확실히 그의 전문 분야 중 하나입니다.

그는 바로 그 주제에 관한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용 가능한 가장 훌륭한 비평적 현대적 또는 최신 비평적 학문입니다. 주석을 위한 마지막 주석은 Carol Newsome이 쓴 구약성서 도서관 Daniel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Norm Porteus의 구약 버전인 구약성서 도서관이 있습니다. 이 책은 2014년에 나왔기 때문에 다른 저자들로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이것도 정말 유용한 자료입니다.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이 책은 비판적인 접근 방식에 더 가깝습니다. 저와 복음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것과는 다른 성경관입니다. 다니엘 장학금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당신이 목사이거나 교사이고 정말로 모든 세부 사항을 살펴보고 싶다면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이것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요? 이를 위한 훌륭한 리소스도 있습니다.

브라이언 채플(Brian Chappell)은 목회자들을 위해 멋진 책을 집필하고 시리즈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중심 접근 방식인 다니엘 복음서입니다. 이분은 베이커입니다. 그는 책을 읽고 숙제를 합니다. 또한 그는 여러분이 그것을 어떻게 적용하고 설교하는지 실제로 알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설교에 대해 더 명시적으로는 Sidney Griedanus , Foundations for Expository Sermons, Preaching Christ from Daniel이 있습니다. 이것은 Erdman의 것인데, 다니엘에게 설교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에도 매우 도움이 됩니다. 모든 장학금과 모든 옵션을 아는 것만으로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설교해야 합니까? 마지막 책인 다니엘서 후반부에 이르면 우리는 매우 어려운 외국의 물, 즉 묵시문학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것은 어렵다. 다니엘서에서 가장 어려운 점 중 하나는 특히 마지막 두 장이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생소한 이스라엘 역사의 시기, 즉 두 번째 성전 시대를 소개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것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하겠지만, 그것은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의 이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 익숙하지 않은 장소들, 그리고 길을 잃게 되는 사람들의 이름으로 가득 찬 정말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역사입니다.

따라서 성서중간기나 제2성전 시대, 뭐라고 부르든 간에 역사를 살펴보기 위해 제가 찾은 최고의 자료, 가장 읽기 쉬운 자료는 Anthony Tomasino의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이전의 유대교, 신약 세계를 형성한 사건과 사상이라고 불립니다. 이것은 IVP, InterVarsity Press에서 제공한 것입니다.

옛날 옛적에 그것은 절판되었습니다. 다시 돌아왔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인터넷에서 무엇이든 찾을 수 있으므로 거기에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것은 역사에 대한 정말 읽기 쉽고 훌륭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사용했던 작가들과 책들을 언급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여러분이 다니엘서를 더 깊이 그리고 더 깊이 파고드는 데 관심이 있다면 공부할 수 있는 다른 장소를 제공할 뿐입니다. 첫 번째 강의의 나머지 부분에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다니엘서 연구와 관련된 문제들을

개관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다니엘서가 구약의 연대기, 즉 다니엘서의 연대기에 어떻게 들어맞는지도 살펴보고 싶습니다. 유대인과 성경의 전반적인 이야기. 따라서 우리는 일정을 살펴보고 문제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서는 구약성서에서 정말 독특한 책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다음으로 나옵니다. 주요 선지자 중 한 사람입니다.

12장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정말 독특합니다. 이 책은 다른 선지자들처럼 예언서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서사적인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다니엘과 사자 굴, 그것은 예언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예언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책에는 아주 기억에 남고 심지어 재미있기까지 한 정말 독특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예언서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두 개의 서로 다른 섹션이 있습니다. 전반부는 이런 서사적 이야기들이다. 후반부는 거칠고 영뚱한 비전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어떻게 한 권의 책에 들어맞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장르가 있습니다. 다니엘서의 또 다른 독특한 점은 두 가지 언어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대부분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이야기할 자매 언어인 아람어의 작은 부분이 포함된 두 권의 책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히브리어로 여섯 장, 아람어로 여섯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성서에서 아람어가 상당량 들어 있는 유일한 책은 에스라서이다. 그래서 에스라서는 포로 생활을 마치고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가는 공동체에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그들은 페르시아 지방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상업 언어인 링구아 프랑카는 아람어였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에는 어떤 서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히브리어 책을

접할 때 아람어로 서신을 쓰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 글자가 아람어로 쓰여졌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의 총독들과 왕들이 글을 주고받을 때는 아람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스라서에서 그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에 이르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이야기인 첫 번째 장을 읽게 됩니다.

그들은 왕의 음식을 먹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1장. 2장은 느부갓네살이 이 웅장한 신상의 꿈을 꾸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에 들어가기도 전에 언어가 아람어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2장부터 4장, 3장, 4장, 5장, 6장까지 모두 아람어이고, 7장은 여전히 아람어입니다.

그리고 다시 히브리어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한 어떤 의미도 없습니다. 왜 바뀌었나요?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것은 구약에서 독특합니다.

후반부와 묵시적인 부분 때문에 독특합니다. 구약성서에는 실제로 묵시적인 문헌이 많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책은 종말, 계시를 뜻하는 신약성경 요한계시록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종말이다. 그리고 때때로 우리가 계시를 받을 때, 우리는 그 이미지를 보게 되는데 그것은 거칠고 이상하며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묵시문학이다.

구약에서 그런 일이 나타나는 유일한 곳은 다니엘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약의 맥락에서 그것을 이해하는 방법을 아는 것은 조금 까다롭습니다. 언어와 장르의 또 다른 점은 다니엘을 어렵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장르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히브리어와 아람어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르가 두 가지입니다.

내러티브도 있고 묵시적인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러티브는 1장부터 6장입니다. 묵시록은 7장부터 12장입니다. 좋아요, 꽤 깔끔하고 깔끔한 구분이죠? 두 가지 언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와 아람어가 있습니다. 음, 히브리어는 1장입니다. 2장의 처음 4절은 기술적으로 말하면 처음 4절 반이고 그다음 8장부터 12장은 히브리어입니다. 아람어는 2장 4b절부터 시작해서 7장 끝까지 계속되는데, 내 생각엔 27절 길이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두 가지 장르, 두 가지 언어가 있지만 실제로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 책을 깔끔하게 나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내러티브가 모두 히브리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묵시록은 모두 아람어이다.

충분히 쉽습니다. 엉망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걸로 무엇을 합니까? 그냥 도전적인 책이에요.

구약성서에서는 특이한 점이 있어서 훨씬 더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점은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러 올 때 본문에 대해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시간이자 장소인 신문을 집어드는 것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문화를 이해합니다. 우리는 기사의 요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소설을 읽는 것과는 다릅니다. 아마도 우리에게 익숙한 장소가 배경일 것입니다.

우리는 저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고대의 책이다. 그것은 다른 시대, 다른 장소, 다른 사람들에게 쓰여졌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쓰여지지 않았습니니다. 휘튼 대학의 구약학자인 존 월튼(John Walton)은 성경이 우리에게 쓰여진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쓰여졌다고 즐겨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연구하는 요령이나 임무는 성경이 원래 청중에게 말한 내용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이 고대 문헌에 접근하면 묻고 싶은 질문이 많이 있으며, 이는 성경에서 무엇을 공부하든 상관없이 사실입니다.

누가 썼는지 묻고 싶나요? 그렇다면 저자는 누구인가? 그리고 성경의 일부 책에서는 그것이 매우 분명합니다. 나 바울은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에 갑니다. 폴이 썼어요.

그리고 그것이 신뢰할 수 있는지, 그것이 사실인지에 대한 논쟁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요점에서 벗어났습니다. 이 책은 바울이 썼다고 주장합니다. 구약성서에는 몇 명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사야야, 이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나타난 환상이니라. 그래서 많은 경우, 저자는 분명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목적에 있어서 그 책들이 익명으로 기록되어 있는 구약성서에서 실제로 매우 사실입니다.

누가 그것을 썼는지에 대한 전통이 있을 수 있지만 책 자체는 결코 그것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저자는 누구인가? 음, 다니엘, 어찌면? 책의 후반부에서는 방어하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나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이것을 보았다고 하였으므로 다니엘이 너희에게 말한 것과 같이 기록되었느니라.

책의 전반부는 저자임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에 관한 이야기가 있지만 다니엘이 그것을 썼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가님, 우리는 잘 모릅니다.

날짜, 그 책은 언제 쓰여졌나요? 다니엘서에서 이것은 큰 문제이고, 그것이 어떤 큰 문제인지 알려면 다음 강의까지 기다리게 할 것입니다. 때로 성경 책에서 우리는 예언된 사건이나 이미 일어난 일을 바탕으로 책이 언제 기록되었는지에 대해 좋은 감각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 왜냐하면 그들이 이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여기 있어야 해. 그래서, 당신은 책이 말하는 것에 기초하여 그것을 역사적으로 위치시킬 수 있습니다. 비록 항상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성경책의 날짜를 정하는 방법입니다.

작가, 날짜, 장르입니다. 장르는 정말 중요한 질문이다. 장르는 단지 글쓰기의 종류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어떤 종류의 글입니까? 서술형인가요? 이야기인가요? 글쎄, 우리는 이야기를 다르게 이해합니다. 예언인가? 우리는 예언을 다르게 이해합니다. 족보인가? 장르는 우리가 무언가를 읽는 방법과 이해하는 방법을 결정합니다.

글쎄요, 다니엘서에는 두 가지 다른 책이 있는데 그 중 하나는 정말 이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항상 확신할 수 없습니다. 청중은 누구였습니까? 이 책의 원래 수신자는 누구였으며, 그들의 배경은 어떠했습니까? 아마도 이 작가가 글을 통해 다루고 있는 역사적 맥락은 무엇이며,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왜 이 책을 썼는가? 이것들은 모두 당신이 성경 구절이나 성경 책을 접할 때 최소한 물어보고 싶은 질문들입니다. 모두 답해드릴 수는 없지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에 얼마나 가까이 도달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다니엘서는 이러한 거의 모든 범주와 관련하여 가장 논쟁이 많은 책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논쟁 중 하나를 선택하면 그 중 일부는 문제를 매우 간결하게 제공할 것이고, 비판적 장학금인 John Collins 및 Carol Newsome과 같은 일부는 세부 사항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런 특별한 견해를 취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런 특별한 견해를 취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럼 여기 하나 있습니다. 이 모든 질문을 다루는 매우 복잡한 책입니다. 그래서 다음 강의에서 우리는 특히 다니엘에 대해 이러한 질문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책을 연구하기 위해 접근할 때 우리가 대답할 수 없는 많은 질문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십시오. .

우리는 최선을 다할 수 있고 선택 사항이 무엇인지 알 수 있지만, 이 모든 것에 대해 다른 견해를 가질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들 중 일부에 대해 다른 견해를 취하는 비판적인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니엘은 공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이 제가 그 질문에 관해 하고 싶은 전부입니다. 제가 이 수업의 나머지 시간을 보내고 싶은 것은 다니엘서를 성경의

이야기, 구약의 이야기, 이스라엘의 이야기에 위치시키고 심지어 구약이 끝나는 곳을 조금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제 이를 수행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타임라인을 사용하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시각적으로 배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 마커가 버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가지고 있는 것은 성경의 이야기이고, 조금 더 나아가서,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약간의 막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에서 창조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저는 그것에 날짜를 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화살표를 그 방향으로 놔두고 창조에 대한 당신의 견해가 무엇이든 날짜만 입력하면 됩니다. 창세기에서 시작 하여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너무 부패하고 사악해져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시는 지점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홍수 이야기입니다. 홍수 후에 상황은 내리막길을 걷고 있으며, 노아의 후손들은 노아와 그의 전임자들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2장에 이르면 구약 역사와 성경 이야기에서 정말 중요한 지점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2장에는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소개되어 있으며,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의해 선택되어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그의 집에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주고 궁극적으로 그와 그의 후손에게 주실 땅으로 가도록 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성경의 나머지 부분의 방향을 정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이며, 그를 통해 그분의 구원 계획을 세상에 이루시겠다는 그분의 택하신 백성에 대한 약속입니다. 글쎄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실제로 이 땅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땅을 소유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것이 아닙니다. 여기저기서 몇 조각이 있지만 그들은 땅을 소유하지 않았고, 결국 창세기가 끝날 무렵에는 그 땅에도 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있고 애굽에 먹을 것이 있으므로 그들이 애굽으로

끌려 내려갔으나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사 그들이 애굽으로 갈 길을 예비하셨느니라.

몇 년 전에 그분은 요셉을 내려보냈는데, 내려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형들이 파는 세겔로 내려갔으나 하나님은 요셉의 형편을 이용하사 그를 애굽에서 높은 자리로 높이사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의 백성이 굶주릴 때에 애굽으로 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느니라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글쎄요, 상황이 나빠졌습니다. 애굽의 상황이 나빠져 백성들이 노예가 되었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는 그들이 어떻게 거기에 왔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전부 알지 못하여 유대인들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그는 히브리인들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위협을 받으사 그들을 포로로 삼으시고 애굽에 포로가 되어 압제와 종살이를 당하며 구원자를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일으키시매 모세가 결국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느니라 출애굽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출애굽의 사건은 꺼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출애굽기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날짜에 대해서는 기원전 1400년부터 기원전 1200년까지, 즉 기원전 약간 넘는 기간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 다루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대략적인 출애굽 날짜로 설정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이끌어 내시고, 광야로 데려가시고, 궁극적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들은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약속의 땅에 이르렀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땅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서에는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는 그들이 땅을 어떻게 취하는지 말하고 싶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땅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땅을 받는 방식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할 만큼 강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땅을 주셨고, 사람들은 그 땅에 정착하여 그

땅에서 조금 편히 지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멸하라고 명하신 모든 백성을 다 멸하지도 못하고 얻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들은 그 땅을 완전히 차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우상 숭배를 하는 이웃들이 있었고 그래서 조금 너무 편안해졌고,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살기를 바라신 대로 살기보다는 오히려 가나안 사람들과 더 비슷해졌습니다. 땅. 일부 저자들은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나안화 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하나님의 독특한 백성으로 구별하여 모세를 통해 그들에게 주신 언약 아래 살기보다는 오히려 가나안 족속과 같이 됩니다.

그리고 사사기에 이르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보다 가나안 사람들과 더 비슷해졌는지에 대한 정말 추악한 설명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이웃의 모든 관습을 보고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다른 신들을 섬기고 다른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사기에는 정말 끔찍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나중에 읽어 보면 그들이 어떻게 언약에 따라 살지 않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사기가 끝날 무렵 이스라엘의 상황은 도덕적으로 혼란스럽습니다. 그것은 단지 혼란스러운 혼란일 뿐이고 그들은 왕을 요구합니다.

그들은 이웃처럼 왕을 원했고 사무엘서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왕을 세우셨습니다. 첫 번째 왕은 잘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입니다. 두 번째 왕은 다윗인데, 다윗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의 본보기가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으며, 하나님은 다윗에게 영원히 살 왕조를 약속하셨습니다. 영원한 의는 궁극적으로 다윗의 계보를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여러 가지로 유명합니다.

우리가 이 수업에서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은 그가 성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이 왕입니다. 글썄, 먼저 David를 여기에 두자. 기원전 1000년경의 다윗의 왕, 여기서는 대략적인 숫자만 사용하겠습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이 그의 뒤를 이어 첫 번째 성전을 건축했는데, 이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거할 곳이 필요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곳은 정말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었고, 하나님을 위해 성별된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솔로몬은 그의 통치 기간 동안 선한 일을 많이 행했지만 나쁜 일도 많이 행했습니다.

더 더러운 이야기는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가 죽으면 그의 왕국은 그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넘어갑니다. 르호보암은 어리고 어리석었고 그의 아버지의 행위를 물려받았습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 비용과 왕궁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백성을 심하게 학대했습니다.

그들은 솔로몬 치하에서 심한 압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은 왕위에 오르자 모사들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라고 묻습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하여 주소서. 당신 아버지는 우리에게 매우 가혹했어요. 짐을 가볍게 하세요. 르호보암은 그들의 짐을 줄여야 합니까, 아니면 말아야 합니까? 그의 아버지의 고문들, 그의 고문들 중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확실히 부담을 덜어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친구들은 '아니요, 당신이 당신의 아버지보다 더 낫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아버지보다 더 강해요. 르호보암은 자기 동료들, 자기와 나이가 더 가까운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 아버지가 나쁘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훨씬 더 나쁩니다. 그리고 922년 르호보암 치하에서, 이런, 이곳은 올바른 지점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여기로 갑니다.

922년, 왕국이 분열됩니다. 이에 대한 몇 가지 다른 날짜를 찾을 수 있습니다. 나는 922를 고수했지만 왕국은 분열되었습니다.

10지파로 구성된 북쪽 왕국은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이곳은 북쪽 왕국이다. 기술적으로도 이스라엘입니다.

남왕국에는 10개의 부족이 있습니다. 남왕국은 남왕국이라 이름을 만들었으나 지리적으로 기억할 수 있다. 기술적으로는 유대입니다.

남 왕국에는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인 예루살렘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첫 번째 왕은 르호보암입니다. 이제 우리는 분열된 왕국, 분열된 왕국을 갖게 되었습니다. 때때로 이를 언급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북쪽 왕국과 남쪽 왕국이 있습니다. 열왕기와 역대기를 읽어보면 북쪽 왕국에는 선한 왕이 없습니다. 그들은 모두 여로보암의 길을 따릅니다. 그들은 다 악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도다

결국 722년 북왕국은 앓수르에게 멸망당합니다. 그 시점에서 그들은 성경 이야기에서 일종의 사라집니다. 남쪽 왕국에는 두 명의 훌륭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마도 히스기야에 대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좋은 왕이었습니다. 아사, 거기에 다른 게 몇 개 더 있어요.

히스기야의 가장 유명한 인물이자 요시야입니다. 두 명의 좋은 왕. 그리고 하나님을 따랐던 이 왕들, 또는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그들의 조상 다윗의 길을 따랐던 왕들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남쪽 왕국의 생명을 조금 더 연장하셨으나 여전히 많은 반역이 계속되고 있음을 아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나쁜 왕, 좋은 왕, 나쁜 왕, 나쁜 왕, 좋은 왕, 그리고 이러한 교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그 상황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의 선지자들은 북쪽과 남쪽 모두에 와서 백성들을 다시 언약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언약에 충실하고 순종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언약에 명시된 모든 규정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주가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우리는 추방될 예정입니다.

이것은 언약을 맺을 때 세워졌습니다. 언약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 같은 이름이 있습니다.

에스겔은 실제로 망명 중입니다. 애도는 기술적으로 선지자가 아닙니다. 다니엘, 그거 좀 기다려봐.

호세아, 요엘, 아모스 등 12명이 더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모두 대부분 이 역사 안에 속합니다. 그 중 몇 개는 나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그들과 맺으신 그 언약으로 그들을 다시 부르려고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왕국이 지속되도록 그들을 신실하게 부르십시오. 요시야는 609년과 그 조금 전의 왕입니다.

그는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실시한 모든 종류의 개혁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으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609에서는 아, 여기서 한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에서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훨씬 더 큰 세상에 사는 작은 나라일 뿐입니다. 따라서 이 모든 일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는 동안 여러분은 큰 장면에 세계 제국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 제국에서는 권력 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귀하에게 적합한 날짜에 가까워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따라서 분열된 군주제 초기에 세계 강국이었던 아시리아가 있습니다.

북쪽 왕국이 멸망할 나라는 앗수르이다. 그러나 612년경 앗시리아는 바빌론에 함락됩니다. 612년은 요나로 인해 가장 유명했던 니느웨 성이 앗수르의 수도로서 앗수르에게 함락되고, 바벨론에게 함락된 때입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은 이 시점에서 세계 강국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로 이 부근인 539년까지 권력을 유지했습니다. 그런 다음 장면은 세계 강국인 페르시아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는 그리스, 특히 알렉산더에 의해 계승될 것입니다. 이는 우리를 332년에 내려 놓을 것입니다. 우리는 헬레니즘 시대인 그리스로 전환할 것입니다. 로마가 바로 여기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신약성서와 그 너머로 데려갈 것입니다. 따라서 세계 현장에는 거대한 제국들이 서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기 어딘가에 지도를 놓아야 해요.

나는 그것에 대해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세계 권력이 거의 없는 이 작은 나라 이스라엘이 겪는 권력 투쟁은 종종 이러한 투쟁의 한가운데에 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설 수 없기 때문에 결국 가신이 되거나 이러한 더 큰 힘 중 하나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음, 여기 609년에 요시야가 돈을 지불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유다가 가신이었습니다. 609년에는 거기에 없는 이집트가 여전히 세상에 있었고 많은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주요 세력이었다.

애굽의 바로 느고는 바벨론 군대를 만나기 위해 북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시야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막으려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요시야는 609년에 전투에서 전사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609년부터 587년경까지 유다의 왕들이 거의 회전문처럼 굴러가는 일이 있습니다. 목록을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지만, 요시아부터 그의 아들 두 명, 조카 중 한 명까지 빠르게 연속적으로 등장하는 사람들이 서너 명 있는데, 그야말로 엉망진창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빌론, 특히 느부갓네살의 봉신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반드시 가신이 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들 왕들 중 일부는 다른 왕들보다 조금 더 반격하고 반항할 것입니다. 마침내 느부갓네살은 587년에 그것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반역적인 유대 왕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그래서 587년에 그가 오자 예루살렘은 무너졌습니다. 성전은 불타고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것이 바로 디보트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는 다니엘도 있습니다. 그는 587년에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일찍 잡혔지만 느부갓네살에 대항하여 여러 차례 반란이 있었다고 내가 말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는 몇 번 왔고 매번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유배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이 시대에 유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의 처음 여섯 장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바벨론 왕들을 섬기는 동안 포로 생활 중에 일어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처음 6개의 이야기는 이 기간에 설정됩니다.

다니엘서의 후반부에서 본 환상, 그가 볼 때의 환상 자체는 이 시대에 설정된 것입니다. 따라서 느부갓네살 통치 기간, 고레스 통치 기간에. 그래서 그는 이 기간에 이 비전을 갖고 있지만 그 비전은 여기 아래의 시간 틀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들은 바로 이곳 역사의 한 시기를 보고 있는데, 적어도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유명한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는 회복된 유다를 그들의 삶을 비참하게 만든 셀레우코스 왕이었습니다. 그러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539년, 포로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페르시아인 키루스의 치하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포로된 사람들이 그들의 땅으로 돌아가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는 심지어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약간의 자금도 제공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539년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515년에는 새로운 성전이 봉헌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두 번째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바라건대 제2성전 시대부터 서기 70년까지 소위 제2성전 시대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두 번째 성전이 서 있는 기간이다. 그래서 515년에 건축되어 재헌납되었고, AD 70년에 로마인들에 의해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제2성전 기간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때때로 언급되는 또 다른 기간은 성서 중간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시작되는 사이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듯이 책의 연대를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구약성서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는 대략 450권 정도라고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라기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과 그 이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마태복음에 대해 대략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신구약 중간기라 부른다. 이것은 두 번째 성전 기간의 작은 부분입니다.

알았어,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 알렉산더 대왕은 기본적으로 고대 근동의 알려진 세계를 장악하고 광대한 제국을 가졌습니다.

그는 페르시아를 물리친 사람입니다. 그러나 알렉산더는 유력한 후계자도 없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거대한 왕국은 어떻게 되었나요? 글썄, 그것은 말다툼을 벌이는 장군들 사이에서 나뉘어졌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4개가 있습니다. 역사가들은 더 많은 것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논쟁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중 두 가지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두는 두 사람은 셀레우코스과 프톨레마이오스입니다. P는 침묵한다. 셀레우코스과 프톨레마이오스는 알렉산더 대왕의 두 장군이었습니다.

그가 후계자 없이 죽고 그의 거대한 왕국이 그의 장군들에게 나누어졌을 때 두 사람이 수령자였습니다. 셀레우코스는 시리아 지역과 그 너머 지역을 받았지만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는 단지 관심만 있을 뿐입니다. 이제 지도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을 제거하십시오. 매우 멋진 고대 근동 지도. 여기 페르시아 만이 있습니다.

알았어, 이게 뭔지 알아? 내가 당신에게 말해 보자. 이것은 지중해입니다. 이것은 나일 강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곳이 이집트인 줄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페르시아만입니다. 우리는 시나이 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 신경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와 사해 사이를 흐르는 요단강입니다. 그게 그거야. 이제 너희도 이곳이 이스라엘 땅인 줄을 알았느니라.

Google에서 검색 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집트, 이스라엘 땅. 여기, 그래, 이걸 정말 비율이 맞지 않지만 어쨌든.

여기에는 바빌론과 페르시아 등이 있고, 셀레우코스는 알렉산더의 후계자였습니다.

새로운 색상이 필요합니다. 파란색. 셀레우코스는 이 영토를 얻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는 이 영토를 얻습니다. 문제가 보이나요? 이들은 영토를 놓고 영원히 다툼을 벌이는 두 명의 장군입니다. 적어도 네 명 중 두 명입니다. 그들은 모두 더 많은 영토를 원합니다.

셀레우코스는 여기 시리아에 있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는 여기 이집트에 있습니다. 글썄요, 안타깝습니다.

그들 중 누가 옳은가요?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은 흔히 사이의 땅이라고 불립니다. 이는 이유.

그들은 고대 근동 지역의 권력 투쟁 사이에 갇혀 있습니다. 이집트, 바빌론, 페르시아. 역사를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히타이트족이 있습니다.

영토와 권력을 위해 투쟁하는 온갖 종류의 위대한 제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항상 이스라엘을 돌아다닙니다. 이스라엘은 사이의 땅이다.

따라서 알렉산더 대왕의 여파로 셀레우코스와 프톨레마이오스가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는 이 영토를 둘러싸고 많은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유다는 앞뒤로 뒤섞여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그들은 셀레우코스 왕조의 지배를 받습니다. 때때로 그들은 프톨레마이오스 왕들의 지배를 받습니다. 앞뒤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상황은 결코 좋지 않습니다. 그들은 결코 독립적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항상 다른 왕 중 하나에게 복종합니다.

여기 셀레우코스가 있습니다. 이런, 셀레우코스. 다니엘 연구에서 우리의 목적에 맞는 그의 가장 유명한 성공은 안티오코스 4세(Antiochus IV)입니다.

따라서 안티오코스 4세는 기원전 170년경에 셀레우코스 왕조가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집트를 원합니다. 그는 이집트 땅을 원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영토를 얻으려는 안티오코스 4세 사이에는 지속적인 투쟁이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권력투쟁도 있어요.

이스라엘에는 셀레우코스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프톨레마이오스를 지지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파벌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러한 스파링 국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엉망이에요. 따라서 이 역사의 어느 시점에서 안티오코스 4세는 이집트에서 패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다루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매우 관심이 있다면, 이 책은 당신이 관심을 갖고 있는 책임입니다. 이것은 모든 세부 사항을 알려줄 것입니다.

안티오코스 4세는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는 부끄러운 패배로 굴욕감을 느낀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분노를 터뜨리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그는 그의 군대를 동원하여 성전을 모독하게 합니다. 그들은 제단에 돼지를 바칩니다. 그들은 그리스 신들의 조각상을 세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들은 성전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더럽혀집니다. 그리고 그 일이 167년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167년에는 성전이 더럽혀져서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은 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련의 메시아들이 이 시기에 일어나 앞으로 더 나은 날들을 약속합니다. 우리는 반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나는 답을 얻었다. 이스라엘의 삶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그들의 철학에 따라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다양한 대련 그룹이 있습니다. 164년에 정상에 오른 그룹은 마카베오파와 하스몬파입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립니다. 하스몬 왕조입니다. 망치로 알려진 장남.

하지만 마카베오는 여러분이 기억하고 싶은 이름입니다. 하스몬파, 마카비파. 그리고 164년에 그들은 반란을 일으키고 성전을 되찾고 재헌납할 만큼 충분한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164년 12월, 그들은 여전히 매년 유대인들이 기념하고 있는 8일간의 축제를 통해 정화된 성전을 재헌납합니다. 하누카입니다. 이것이 그 사건과 다시 연결되는 것입니다.

마카베오파, 혹은 마카베오파 반란 아래서 성전을 복원하는 것입니다. 164입니다. 좋아요.

이것은 많은 역사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우리가 단지 다니엘서를 공부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길을 잃었나요? 그런데 다니엘의 환상이 이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더 많은 것을 보게 될 수도 있지만 확실히 그들은 이러한 이벤트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 환상을 보고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공포에 대한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제 막 망명 생활을 마치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단지 공포를 뒤로하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앞으로 더 큰 공포에 대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이 기간에 해당하는 다니엘서가 어떻게 해당 기간에 일어나는 사건을 말하면서도 주로 이 기간에 해당하는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지에 대한 역사 집중 강좌입니다. 좋아요. 그것은 많은 역사였지만, 나는 그것이 성경의 관점에서, 그 이야기의 관점에서, 심지어 일부 고대 역사의 관점에서 다니엘서가 어디에 적합한지에 대해 우리가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강의를 여기서 끝내고 다시 돌아와서 해석적 질문 중 일부를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서에 대해 가르치는 Dr. Wendy Widder입니다. 세션 1, 다니엘서 소개입니다.